



**포스트모더니즘을 이끈 '디자인계의 피카소' 에토레 소트사스의 오리지널 작품 공개
더페이지갤러리, <휴머니즘 & 유머니즘>展 개최**

- 80년대를 풍미하고 현재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는 디자인 그룹 '멤피스(Memphis)'의 리더
- 기능주의를 탈피해 인간의 감정, 그리고 유머를 더하는 감각적인 디자인 추구
- 밀라노 에토레 소트사스 재단에서 보유한 오리지널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
-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작가의 일생을 아우르는 작품 20점 전시



[사진: Storage partition from the Tufarelli Residence, Capri, Italy, 1965, Walnut, formica, and acrylic on canvas, 293 x 399 x 45 cm / 이미지 제공 더페이지갤러리 재판매 및 DB 금지]

2022년 8월 24일 - 더페이지갤러리는 '디자인계 피카소', 1980년대 포스트모더니즘 디자인을 이끌고 디자인계에 한 획을 그은 이탈리아 건축가이자 디자이너 에토레 소트사스(Ettore Sottsass)의 한국 첫 개인전 <휴머니즘 & 유머니즘>을 오는 8월 26일부터 10월 19일까지 이스트(EAST)관에서 개최한다.

에토레 소트사스는 70년대 후반 기능주의와 조형주의의 반대운동으로 일어난 이탈리아의 반디자인 운동(Anti Design)의 대표주자로 기존의 기능주의에서 탈피한 감각적이며 흥미로운 디자인을 추구했다. 그의 디자인은 그가 결성한 디자인 그룹 '멤피스(Memphis)'의 젊은 예술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이후 80년대를 풍미했던 포스트모던 디자인 운동을 이끌었다. 이를 통해 이탈리아 미술은 물론 산업 디자인을 세계적인 반열에 올려 둔 장본인이기도 하다.

더욱 자유롭고 풍요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위해 일상에서 디자인을 경험해야 한다고 여긴 에토레 소트사스는 디자인을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예술로 구체화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인간이 있었다. 이번 전시 <휴머니즘 & 유머니즘>에서는 그의 60여년에 걸친 커리어 전반을 조명하기 위해 휴대용 타자기부터 캐비닛, 조명, 꽃병, 대형 파티션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작품이 전시된다. 그는 1980년대 Memphis 디자인 운동을 통해 밝은 컬러와 플라스틱 등 인공재료를 주로 사용했지만 이번 전시에서 소개되는 60년대 그의 초기 작품은 호두나무 등 고급목재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며, 초기 작업 시 형태와 색상 조합을 탐구하는 중요한 매체였던 도자기 꽃병이 후기 디자인에서 다시 사용되어 유리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꽃병도 소개된다.

에토레 소트사스는 본인 작업의 주요 목표가 사람들에게 외로움과 불행에 대처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라 말하곤 했다. 그래서 그는 장난기 많고 재치 있으며 기발한 디자인으로 유명했는데, 이번 전시에서 그의 대표작이자 20세기 디자인의 아이콘이 된 1969년작 빨간색 휴대용 타자기, '발렌타인(Valentine)'도 함께 공개된다. 그의 획기적인 타자기는 올리베티사(Olivetti)의 커미션을 통해 출시된 제품으로, 상품의 기능성을 탈피하고 예술의 영역으로 접근한 소트사스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작품이다. 상품과 예술 사이의 독특한 혼성성을 지닌 타자기로 그에게 황금콤파스상의 영광을 가져다 주기도 했다. 인체 공학을 넘어 소유물에 감정을 이입하는 소트사스의 탐나는 오브제이다.

총 4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지는 이번 전시는 2000년대 작품에서 시작해 1960년대 작품으로, 시대를 역행하며 작품을 보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건축가로서의 DNA가 작품에 온전히 묻어남 원시적이면서 조형적으로 거대한 오브제에서 점차 장식적이고 다채로운 표정을 가진 오브제가 관객을 맞이한다. 특히 작년 풍피두 센터에서 그의 1960년대 작품인 아모르 슈퍼박스(Amoire Superbox)를 전시하며 그 역사적 의미를 조명했듯이, 서울에서는 이번 전시에서 Memphis 그룹을 만들기 전 그의 독창적 작품들을 전시함으로써 에토레 소트사스 고유의 작품 세계를 더욱 잘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에토레 소트사스의 국내 첫 개인전 <휴머니즘 & 유머니즘>을 위해 작품을 보내준 에토레 소트사스의 재단 관계자는 “소트사스는 자신의 분야를 재정의하고 사회 감수성의 주요 변화를 예견한 매우 드문 예술가 중 한 명이었다. 한국 관객과 컬렉터에게 에토레 소트사스의 60년 경력에서 중요한 챕터를 선보이게 되어 영광이며, 보기 드물고 희귀한 소트사스의 다양한 작품을 마음껏 즐기기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전시 기간 내에 진행될 국내 최대 아트 페어, 키아프 서울 2022에서 'Storage partition from the Tufarelli Residence, Capri, Italy'이 더페이지갤러리 부스에 전시되어 더 많은 대중들과 만날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더페이지갤러리 이스트(EAST)관에서 8월 26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되며 네이버 사전예약을 통해 무료 예매 후 관람할 수 있다.

아티스트 소개

에토레 소트사스(Ettore Sottsass, 1917, Innsbruck, Austria-Hungary ~ 2007, Milan, Italy)



[Courtesy of Friedman Benda and Ettore Sottsass, Photography by Erik & Petra Hesmerg]

이탈리아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인 에토레 소트사스는 수 많은 건축과 인테리어 디자인은 물론 가구, 보석, 유리, 조명, 가정 및 사무용품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활약했다.

‘간결한 것은 부족하다.’ ‘디자인은 관능적이며 흥미롭기까지 해야한다.’

라는 말로 기능주의의 한계를 드러내며, 1981년 젊은 건축가 및 디자이너들과 함께 밀라노에서 디자인 그룹 ‘멤피스(Memphis)’를 결성했다. 이들은 1988년 조직이 해체될 때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갔으며 1980년대 중반 이후 대두된 포스트모더니즘과 영향을 주고 받았다. 생동감 넘치는 컬러, 자유분방한 디자인은 ‘멤피스 디자인’으로 불리웠으며 이는 이후 패션과 예술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에토레 소트사스의 작품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파리의 퐁피두센터, 런던의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 등 세계 유수의 박물관들에서 영구 소장품으로 전시되어 있다. 특히 올해 초 밀라노 트리엔날레에서 그의 걸작, 까사 라나(Casa Lana)가 개보수를 통해 상설전시로 다시 선보였고, 올해 에토레 소트사스를 조명하는 일련의 전시 및 이벤트가 함께 예정되어 있다.

주요 전시 작품 소개



[사진: Storage partition from the Tufarelli Residence, Capri, Italy, 1965, Walnut, formica, and acrylic on canvas, 293 x 399 x 45 cm / 이미지 제공 더페이지갤러리 재판매 및 DB 금지]

자신의 삶의 경험과 세계 여행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디자인을 재해석하고 시대를 앞서갔던 에토레 소트사스. 그의 이번 전시 작품 중 가장 큰 오브제인 1965년 제작된 가로 4m, 높이 3m 크기의 'Storage partition from the Tufarelli Residence, Capri, Italy'는 지금의 빌트인 가구로 벽을 활용한 문과 수납장, 그리고 중간에 아트 작품을 추가할 수 있는 공간까지, 진정 시대를 앞선 그의 심미안과 디자인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사진: (좌) Lamp, 2003, Lacquered aluminum, 230 x 65 x 65 cm (우) Lamp, 2003, Lacquered aluminum, 230 x 70 x 32 cm / 이미지 제공 더페이지갤러리 재판매 및 DB 금지]

검은색 컬러와 기하학적인 비례감이 돋보이는 램프. 불을 밝히는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어떤 공간에서도 존재감을 발휘하는 예술품으로서 조명을 재탄생 시켰다.



[사진: Cabinet no.79, 2006, Zebra wood, 232 x 213 x 53 cm / 이미지 제공 더페이지갤러리 재판매 및 DB 금지]

대량생산과 기계적 요소의 기능만을 강조하던 시기에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으며, 디자인은 관능적이며 흥미진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에토레 소트사스의 불규칙적 기하학이 돋보이는 캐비닛. 직사각형의 수직 중심의 캐비닛에서 벗어나 비대칭적이고 역동적인 구조물이자 조형물로 탄생시켰다.



[사진: Cabinet, 2006, Tamo, polished aluminum, 187 x 145 x 60 cm / 이미지 제공 더페이지갤러리 재판매 및 DB 금지]

가정과 사무실의 대표적인 수납가구로서 기능이 중시되는 캐비닛이지만 기능적인 관점 위에 조형물로서 예술적인 미와 인간의 자유로운 정신을 담고자 했던 에토레 소트사스의 디자인 철학이 담겨있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사진: Double-bodied Sideboard (Model MS. 120), 1960, Veneered wood, painted wood, brass, 138 x 118 x 46 cm / 이미지 제공 더페이지갤러리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작품에서 등장한 검은색 관 모양의 다리는 소트사스의 작은 사이드 테이블, 일반 테이블, 벤치 등 다양한 가구에서 활용되었다. 초기 폴트로노바(Poltronova) 시리즈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리즈의 캐비닛은 단일구조와 두 캐비닛이 연결된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되었으며, 연결시키는 캐비닛의 다양한 색채 조합이 가능하다.

* * *

더페이지갤러리(The Page Gallery) 소개

2011년 개관한 더페이지갤러리는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현대미술을 대중과 매개하는 한국의 대표 갤러리로 입지를 다져왔다. 최명영, 김춘수, 나점수 등 한국 대표작가들의 전시에 주력하는 한편 참신하고 실험적인 기획전시를 통해 관객들과 소통하고자 세계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국외작가들의 전시를 지속적으로 기획하여 한국 미술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500호 이상의 미술관급 대형 작품을 설치할 수 있는 EAST관, 대규모 전시부터 소규모 전시까지 다양한 성격의 전시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WEST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페이지갤러리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2길 32-14, 갤러리아 포레 G205

운영: 화요일~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6시 (월요일 휴관)

문의: 02-3447-0049